



문화 산업과 데이터분석 Project_4팀

▼ TEAM MEMBERS

손채리 2019311148 한문교육과

윤지우 2021310464 독어독문학과

김서영 2020313603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최재원 2022311448 통계학과

이수아 2021310846 글로벌경영학과



데이터 분석 목적

1) 데이터 분석 주제

: 전국 시도별 여행자 수와 관광 요소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 제안

2) 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 전국 지자체별로 관광객 수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어떤 관광 요소가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상관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객 하위 3개 지역에 대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제안한다.

3) 활용 데이터셋 소개

- 출처 :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 데이터셋 구성

- 2023 / 2024 : 소비액 (ref.exp)/ 방문자수(ref.vis)/ 검색수(ref. search)

▲	Region	exp_24	exp_23	vis_24	vis_23	Search_24	Search_23
1	서울특별시	12271830690	12619159246	606502936	580253420	71730686	71843693
2	부산광역시	3178028987	3209788309	152046393	144569398	25012672	24299541
3	대구광역시	1918933813	1898701162	104672017	103719747	14092205	13122306
4	인천광역시	2031492555	1925701266	186246465	167230432	33066320	30441405
5	광주광역시	945670878	982577482	67544661	66555389	7353199	6906421
6	대전광역시	1674917945	1641411787	83670516	79116223	10879523	10132061
7	울산광역시	569142198	583484090	50038350	48081723	6672480	6541540
8	세종특별자치시	104472409	104757023	27702482	27495226	3057969	3051481
9	경기도	9618339191	9770301355	638748086	618532459	143402915	140361730
10	충청북도	1048252331	1086101306	114558111	111725824	15410687	15044849
11	충청남도	1209587520	1233750604	167383720	163842604	23945515	23631562
12	전라남도	988899891	1009929078	129635689	131424804	16031661	15674432
13	경상북도	1271012388	1314624597	180084118	184316765	21089588	21804668
14	경상남도	1566032205	1605868671	157766696	154720558	22536373	22491827
15	제주특별자치도	1016992810	1212914648	61703869	67650465	14400081	18742801
16	강원특별자치도	1307869360	1407679343	149516731	156998392	33637909	35941758
17	전북특별자치도	726007625	788352529	97184834	98609276	12873403	12908078

2. 관광요소 10개 :

- 길 관광: 1,556 Entries 16 Columns



Road Name	Road Description	Total Length	Total Travel Time	Start
1 원주굽이길 원11코스 다둔인벌길	원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생태 탐방 코스	18.0	4~5시간	귀래면
2 원주굽이길 원12코스 북원역사길	원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생태 탐방 코스	11.8	3시간	원주읍
3 원주굽이길 원13코스 무실과수원길	원주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역사·생태 탐방 코스	10.7	3시간	종합군
4 해파랑길(제23구간)	바다를 배경으로 어촌마을과 해변을 지나는 조용한 코스	11.9	4	고래동
5 해파랑길(제24구간)	해안 도로를 따라 숲길과 갯벌, 백사장과 온천이 조성된 힐링 코스	18.2	6	후포면
6 해파랑길(제25구간)	동해안을 벗삼아 시를 읊던 묵객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해안길	23.2	7.5	기성면
7 해파랑길(제26구간)	두 개의 공원과 해변과 숲길, 등대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길	12.9	5	수산면
8 해파랑길(제27구간)	어촌마을과 유적지, 울진도심 등 다양한 울진의 모습을 발견할 수 ...	11.4	3.5	죽변면
9 왕피천 은어길	왕피천 계곡을 따라 연결된 탐방로	2.2	1	성산읍
10 불영사계곡 녹색길(3코스)	일부 하천을 가로지르는 길과 마을안길, 농로로 이루어진 비교적 평...	11	4	불영면
11 불영사계곡 녹색길(2코스)	협곡으로 이루어진 계곡탐방형 코스로 난이도가 있는 구간	7.5	4	불영면
12 불영사계곡 녹색길(1코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불영사 계곡의 초입부로 그림같은 자연 경...	10	3	엑스포
13 낙동정맥트레일(4코스-수구당 탐방길)	영양군에 윗삼승령에서 시작해 영덕으로 이어지는 구간	13.5	5	윗삼승
14 낙동정맥트레일(3코스-심미골단풍길)	덕거리에서부터 봉화 남회룡리로 이어지는 구간	7.9	4	덕거리
15 낙동정맥트레일(2코스-봉황의 터 탐방길)	길을 따라 걷다보면 곳곳에 봉황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구간	7.2	3	넓재
16 장수산길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주는 걷기 좋은 숲길	1.3	30분	인천시
17 월평공원 습지길	생태환경길	4	1시간20분	도솔
18 로하스 해피로드	생태환경길	5.6	1시간50분	옹정
19 예향천리마실길 동학농민군진격로길	고창 동학농민군의 자취를 따라 걷다보면 곳곳에 유래판이 보입니다...	19.5	6시간	무장군
20 예향천리마실길 가시연꽃길	가시연꽃이 피어나는 용대저수지를 지나 구시포해수욕장으로 이어...	13	5시간 30분	최여읍
21 전북 천리길 운곡습지생태길 1코스	위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운곡습지는 용계, 운곡 등 10개 마을...	5	2시간	운곡습
22 전북 천리길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	운곡습지생태길 2코스는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에서 출발, 운곡저...	10	4시간	운곡습
23 전북 천리길 고창읍성길	모양성이라고도 부르는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이 이번 길의 시작...	13	4시간 30분	고창읍
24 양천구 지역명소 탐방코스 1	양천구 지역명소 탐방코스	3.2	2시간	연의동

Showing 1 to 24 of 1,556 entries, 16 total columns



(2) 가로수길 : 10,242 Entries, 18 Columns

	Street Tree Road Name	Street Tree Road Start Latitude	Street Tree Road Start Longitude	Street Tree Road End Latitude
1	동광길	36.48592	127.7154	3
2	발섬3길	34.93384	127.6987	3
3	섬진강매화로	35.07894	127.7227	3
4	사평1길	36.78976	127.8716	3
5	공항대로	37.56178	126.8073	3
6	등촌로	37.55070	126.8640	3
7	양천로	37.57271	126.8040	3
8	화곡로	37.53995	126.8339	3
9	개화동로	37.56177	126.8071	3
10	강서로	37.52807	126.8488	3
11	가로공원로	37.53724	126.8375	3
12	곰달래로	37.53011	126.8384	3
13	남부순환로	37.56116	126.8073	3
14	발산로	37.55232	126.8166	3
15	방화대로 48길	37.57569	126.8162	3
16	방화대로 47길	37.57622	126.8123	3
17	방화대로	37.57737	126.8169	3
18	마곡중앙로	37.57270	126.8288	3
19	금낭화로	37.58070	126.8142	3
20	허준로	37.57090	126.8419	3
21	초원로	37.56782	126.8056	3
22	월정로	37.53659	126.8344	3
23	우현로	37.54798	126.8366	3
24	공항대로 39길	37.55925	126.8436	3

Showing 1 to 24 of 10,242 entries, 18 total columns

(3) 향토문화유적: 4,510 Entries, 20 Columns

	Cultural Heritage Name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Number	Cultural Heritage Type	Cultural Heritage Category
1	쌍청리선돌	청주시 향토기념 제19호	기념물	석조물
2	병마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0호	기념물	성터
3	저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1호	기념물	성터
4	동립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2호	기념물	성터
5	목령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3호	기념물	성터
6	노고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4호	기념물	성터
7	영하리 고분군	청주시 향토기념 제25호	기념물	옛무덤
8	낭비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6호	기념물	성터
9	용계리 고분	청주시 향토기념 제27호	기념물	옛무덤
10	문의 샘봉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6호	기념물	성터
11	문의 장군봉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7호	기념물	성터
12	남이 독안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8호	기념물	성터
13	남이 복두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29호	기념물	성터
14	오창 서림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30호	기념물	성터
15	화림사 삼층석탑	청주시 향토자료 제1호	민속자료	석조물
16	창리석조보살입상	청주시 향토자료 제2호	민속자료	석조물
17	동고정	청주시 향토유형 제122호	유형문화유적	건조물
18	탑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청주시 향토유형 제123호	유형문화유적	석조물
19	탑리 석조약사여래좌상	청주시 향토유형 제124호	유형문화유적	석조물
20	충정영당	청주시 향토유형 제125호	유형문화유적	건조물
21	미천리 고분군	청주시 향토기념 제10호	기념물	옛무덤
22	작은용굴 유적	청주시 향토기념 제11호	기념물	동굴
23	소이산봉수	청주시 향토기념 제12호	기념물	봉수터
24	구룡산성	청주시 향토기념 제13호	기념물	성터

Showing 1 to 24 of 4,510 entries, 20 total columns



(4) 문화행사: 1,673 Entries, 18 Columns

	Festival Name	Venue	Festival Start Date	Festival
1	강릉커피축제	강릉대도호부 관아지 등	2022-10-06	2022-10-06
2	전국생활문화축제 in강릉	강릉명주예술마당	2022-10-27	2022-10-27
3	2022 강릉와인축제	강릉 월화거리 일원(문선빌딩 방면)	2022-12-09	2022-12-09
4	2022 강릉누들축제	강릉 월화거리 일원(홈플러스 방면)	2022-12-16	2022-12-16
5	군위 삼정군단오축제	효령면 고지비위권역다목적센터 일원	2022-06-03	2022-06-03
6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문화축전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일원	2022-10-29	2022-10-29
7	구례산수유꽃축제	산동면	2023-03-11	2023-03-11
8	2016 안양 시민축제	평촌중앙공원+삼덕공원+범계로데오	2016-09-24	2016-09-24
9	2016 안양 아줌마축제	평촌중앙공원	2016-05-28	2016-05-28
10	2016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안양예술공원	2016-10-15	2016-10-15
11	2014 안양시민축제	평촌중앙공원+삼덕공원	2014-09-26	2014-09-26
12	2017 안양충훈벚꽃축제	안양충훈2교일대	2017-04-07	2017-04-07
13	2017 안양 아줌마축제	평촌중앙공원	2017-05-27	2017-05-27
14	2017 광복기념음악회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2017-08-15	2017-08-15
15	2017 안양 시민축제	평촌중앙공원+병목안시민공원+범계로데오	2017-09-15	2017-09-15
16	2018 안양충훈벚꽃축제	안양충훈2교일대	2018-04-07	2018-04-07
17	2018 안양여성축제	평촌중앙공원	2018-05-12	2018-05-12
18	2018 광복기념음악회	병목안시민공원	2018-08-15	2018-08-15
19	2018 안양 시민축제	평촌중앙공원+병목안시민공원+범계로데오	2018-09-14	2018-09-14
20	마곡사 신록축제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일원	2022-05-07	2022-05-07
21	제68회 백제문화제	금강신관공원	2022-10-01	2022-10-01
22	제5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온라인	2022-01-29	2022-01-29
23	제1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	2022-06-17	2022-06-17
24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KT&G 삼상마당 춘천 1전시실+KT&G 삼상마당 춘천 2전시실	2022-07-13	2022-07-13

Showing 1 to 24 of 1,673 entries, 18 total columns

(5) 전국 지역 특화거리 : 280 Entries, 14 columns

Special Road Name	Road Description	Road Address
1 강풀만화거리	지역 유명 작가의 만화(웹툰)과 마을 이야기를 공공미술로 재구성한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64길 4-1
2 꽃비위 외국인 특화거리	내국인 및 외국인의 자연스러운 방문과 활발한 문화교류의 글로벌 ...	울산광역시 동구 남진길 52
3 복수 한우음식특화거리	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 식당거리 조성, 산과 강이 어우려진 ...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 추부 추어탕거리	하늘이 준 건강선을 인삼과 추어탕이 어우러진 인삼추어탕거리 조...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
5 금강변 민물어죽마을	금산 상류 청정지역에서 자란 민물고기로 요리한 전문 어죽마을, 산...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 유엔참전기념거리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테마거리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 왕십리여행자거리	모텔촌에 한국의 고유한 정서(대동여지도여행을 모티브로 로고제작...)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0길
8 마장동 축산을 특화 거리	마장축산을 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1길 40
9 문화의 거리	시장활성화+특색있는 거리 조성+보행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도...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350번길
10 홍주골 음식문화 거리	70여곳의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T자형 음식문화거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23
11 웨딩거리	웨딩관련 업종의 상가가 밀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길+3길+4길+5길
12 차이나거리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기념으로 조성된 거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2길
13 솔동산문화의거리	지역문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로등, 간판, 공원, 공연무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
14 녹동 음식특화거리	녹동구항 음식거리 일부를 유럽풍의 옥외음식 영업가능 거리로 조성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77
15 상주읍성 문화거리	옛 읍성의 서쪽길로 문화의 거리 조성	경상북도 상주시 서성3길
16 중촌동 맞춤거리 상점가	중촌동 웃맞춤 특화거리	대전광역시 중구 둉서대로 1421번길 33(중촌동)
17 충무자동차거리 상점가	자동차 특화거리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22-1(대사동)
18 오류동 특화거리 상점가	음식특화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74번길 13(오류동)
19 영천한방테마거리	영천한의마을 한방테마거리는 한방도시 영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485
20 삼산디자인거리	울산의신흥 쇼핑메카로 음식점+카페+책방+악세사리점 등 쇼핑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74
21 바보디자인거리	울산대학교의 대학으로 음식점+카페+책방+악세사리점 등 쇼핑과...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84
22 왕생이길(1구간)	달동문화공원과 연계한 문화 예술거리로 카페와 음식점이 형성되어...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23 왕생이길(2구간)	울산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예술이 어우러진 거리로 다양한 음...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24 창동 먹자골	음식점 특화거리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0번길 15

Showing 1 to 24 of 280 entries, 14 total columns

(6) 숙박업소 : 1,153 Entries, 64 Columns

	ID	Open Service Name	Open Service ID	Open Local Government Code	Management Number	License Issuance Date
1	1	관광펜션업	03_11_02_P	4341000	CDFI3261092005000001	2005-08-29
2	2	관광펜션업	03_11_02_P	4341000	CDFI3261092007000001	2007-01-09
3	3	관광펜션업	03_11_02_P	4341000	CDFI3261092008000001	2008-11-19
4	4	관광펜션업	03_11_02_P	4341000	CDFI3261092015000001	2015-02-11
5	5	관광펜션업	03_11_02_P	4400000	CDFI3261092009000006	2009-07-07
6	6	관광펜션업	03_11_02_P	5050000	CDFI3261092014000006	2014-11-19
7	7	관광펜션업	03_11_02_P	5050000	CDFI3261092014000007	2014-11-19
8	8	관광펜션업	03_11_02_P	5050000	CDFI3261092017000001	2017-09-05
9	9	관광펜션업	03_11_02_P	5050000	CDFI3261092017000002	2017-09-05
10	10	관광펜션업	03_11_02_P	4510000	CDFI3261092015000013	2015-07-01
11	11	관광펜션업	03_11_02_P	4510000	CDFI3261092016000001	2016-06-29
12	12	관광펜션업	03_11_02_P	4510000	CDFI3261092017000001	2017-08-07
13	13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10000	CDFI3261092012000001	2012-11-01
14	14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7000001	2007-10-11
15	15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7000003	2007-02-27
16	16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00000	CDFI3261092011000001	2011-08-12
17	17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8000005	2008-12-23
18	18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8000007	2008-09-17
19	19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9000001	2009-01-16
20	20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9000003	2009-05-14
21	21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9000004	2009-01-16
22	22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10000002	2010-06-08
23	23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07000004	2007-02-27
24	24	관광펜션업	03_11_02_P	4620000	CDFI3261092017000011	2017-08-28

Showing 1 to 24 of 1,153 entries, 64 total columns

(7) 유원시설 : 78 Entries, 64 Columns

	ID	Open Service Name	Open Service ID	Open Local Government Code	Management Number	License Issuance Date
1	1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480000 CDFI5271002005000001	2005-07-22
2	2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090000 CDFI5271002008000001	2008-07-18
3	3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820000 CDFI5271002018000001	2018-06-20
4	4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281000 CDFI5271002008000001	2008-06-12
5	5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380000 CDFI5271001993000001	1993-04-30
6	6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380000 CDFI5271001993000002	1993-04-30
7	7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350000 CDFI5271002014000001	2014-05-01
8	8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060000 CDFI5271001987000001	1987-10-30
9	9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430000 CDFI5271002003000001	2003-04-21
10	10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510000 CDFI5271002003000001	1993-07-27
11	11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520000 CDFI5271001973000001	1973-07-11
12	12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520000 CDFI5271002005000001	2005-04-29
13	13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191000 CDFI5271001996000001	1996-04-27
14	14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291000 CDFI5271002003000001	2003-04-17
15	15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380000 CDFI5271002004000001	2004-04-27
16	16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670000 CDFI5271001994200001	1994-09-30
17	17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670000 CDFI5271002013000003	2013-08-23
18	18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670000 CDFI5271002019000001	2019-09-03
19	19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890000 CDFI5271002017000001	2017-07-03
20	20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670000 CDFI5271002005000002	2005-01-10
21	21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650000 CDFI5271001987000001	1987-05-27
22	22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3280000 CDFI5271001988000001	1988-05-26
23	23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5410000 CDFI5271001984000001	1984-07-13
24	24	종합유원시설업	03_07_12_P		4010000 CDFI5271002000000001	2000-08-19

Showing 1 to 24 of 78 entries, 64 total columns

(8)박물관(미술관) : 2,300 Entries, 26 Columns

Facility Name	Museum/Art Gallery Type	Road Address	Lot/Block Address
1 수다라성보박물관	사립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2 우리삶문화유당박물관	사립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3길 3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36
3 대청댐물문화관	사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1-5
4 엣터민속박물관	사립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321-35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361-3
5 충남대학교 박물관	대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6 충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대학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7 울산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888
8 울산대곡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서하천전로 257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0
9 울산약사체방유적전시관	공립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14길 22-28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917-1
10 울산암각화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반구대안길 2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3
11 울산시립미술관	공립	울산광역시 중구 미술관길 72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3
12 울산장생포고래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44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
13 울산외솔기념관	공립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12길 15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613
14 울주민속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외고산 1길 4-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44
15 울산옹기박물관	공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외고산 3길 3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50
16 울산해양박물관	사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2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승리 26
17 소래역사관	공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2
18 애보박물관	사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번지
19 한국전통음식박물관	사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번지
20 유엔군 초전기념관	공립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42	NA
21 의왕향토사료관	공립	경기도 의왕시 골우물길 49	NA
22 이천시립박물관	공립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172	NA
23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공립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910번길 96-63	NA
24 전곡선사박물관	공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NA

Showing 1 to 24 of 2,300 entries, 26 total columns

(9) 휴양림 : 231 Entries, 17 Columns

ID	Province Name	Recreation Forest Type	Recreation Forest Area	Capacity	Entrance Fee
1 광치자연휴양림	강원도	공유림	51.00	160	3000원
2 삼척활기자연휴양림	강원도	사유림	75625.00	175	0
3 강릉임해자연휴양림	강원도	공유림	1160000.00	105	비수기 평일(6인실)7000원
4 거제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국유림	345377.00	600	일반1000원+청소년700원
5 성수산자연휴양림	전북특별자치도	공유림	135.00	119	0
6 함평자연생태공원	전라남도	국유림	561867.00	N/A	(성수기: 3~11월)성인5000원
7 거창 황노화 힐링랜드	경상남도	공유림	500000.00	2000	3000원(거창사랑상품권)
8 금봉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공유림	380.00	200	1000원
9 문수산자연휴양림	경상북도	국유림	30000.00	500	일반 1000원+단체800원
10 영양에코동지	경상북도	공유림	642784.00	250	무료
11 춘천숲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림	808043.00	100	0
12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라남도	공유림	1600000.00	3000	개인(일반1000원+단체800원)
13 용봉산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공유림	1905504.00	3000	개인(일반 1000+청소년500원)
14 삼척활기자연휴양림	강원특별자치도	사유림	75625.00	175	0
15 순천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사유림	90000.00	265	무료
16 한방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공유림	1376062.00	102	무료
17 남해현백자연휴양림(남해)	경상남도	국유림	1420000.00	900	개인 어른1000원+개인 어린500원
18 지리산자연휴양림(함양)	경상남도	국유림	2267840.00	800	개인 어른1000원+개인 어린500원
19 원동자연휴양림(양산)	경상남도	사유림	747070.00	231	무료
20 덕원자연휴양림(하동)	경상남도	사유림	1378675.00	100	무료
21 중산자연휴양림(산청)	경상남도	사유림	436668.00	66	무료
22 좌구산자연휴양림	충청북도	공유림	730000.00	250	없음
23 산삼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공유림	670000.00	200	숲속의집5인실(비수기9000원)
24 대봉산자연휴양림	경상남도	공유림	950000.00	150	숲속의집5~6인실(비수기10000원)

Showing 1 to 24 of 231 entries, 17 total columns

(10) 공연: 9,384 Entries, 27 Columns

Event Name	Venue	Event Description	Event
Data Browser 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2 하유전	제2전시실	전시	2023-
3 이정희 개인전	제2전시실	전시	2023-
4 손유하 개인전	제2전시실	전시	2023-
5 진은정 작가 외 그룹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6 양시온 개인전	제2전시실	전시	2023-
7 2023 박일철 개인전 나비의 꿈	제2전시실	전시	2023-
8 제 5회 스토리아트 아이들의 ART STORY	제2전시실	전시	2023-
9 캘리(Calligraphy)와 젠탱글(Zentangle)의 만남	제2전시실	전시	2023-
10 이상하게 끌리는 paperflower artcraft	제2전시실	전시	2023-
11 쌈지사랑 규방공예연구소 아라미 연구 회원전-보자기, 시간을 품다	제2전시실	전시	2023-
12 김준호 개인전 <시간의 바다-상상의 여정>	제2전시실	전시	2023-
13 마법미술관 꿈꾸는 눈, 창의적인 손	제2전시실	전시	2023-
14 해운마당 정기 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15 신라대학교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 졸업작품 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16 앤비규어스 픽쳐스 드론사진 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17 다빈치 미술전시회	제2전시실	전시	2023-
18 아들, []자리다	제2전시실	전시	2023-
19 지구사랑 실천	제2전시실	전시	2023-
20 제5회 남경 서회전	제2전시실	전시	2023-
21 아동 그림전시	제2전시실	전시	2023-
22 노인지도사직무교육	삼척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노인지도사직무교육	2022-
23 여여회 도자기 회원전	삼척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여여회 도자기 회원전	2022-
24 제28회 삼척시민의날 행사	삼척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8회 삼척시민의날 행사	2022-

Showing 1 to 24 of 9,384 entries, 27 total columns





- 데이터셋 기간: 소비액 (ref.exp), 방문자수(ref.vis), 검색수(ref. search) 데이터의 경우 2023년의 데이터와 2024년의 데이터를 각각 따로 썼으며, 관광요소들의 데이터는 2024년 5월 20일자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사이트 이용.

▼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

(1) CSV file 읽기 (UTF-8 encoding)

```

library(readr)
install.packages("readr")
library(readr)

SouthKorea_Road <- read_csv("SouthKorea_road.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Garosu_Gil <- read_csv("Garosu_Gil.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Traditional_heritage<- read_csv("Traditional_heritage.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Cultural_Festival<- read_csv("Cultural Festival.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Specific_Road<- read_csv("Specific_Road.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Accommodation <- read_csv("Accommodation.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Waterpark <- read_csv("Waterpark.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Museum<- read_csv("Museum.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Recreational_forest <-read_csv("Recreational_forest.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Performance <- read_csv("Performance.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exp_vis_search <- read_csv("exp+vis+search.csv", locale = locale(encoding = "EUC-KR"))

```

(2) 모든 Colnames 영문명으로 수정 (문서에는 일부 생략)

```

colnames(SouthKorea_Road) <- c("Road Name", "Road Description",
                                "Start Point Name", "Start Point Address", "Start Point Latitude",
                                "End Point Name", "End Point Address", "End Point Latitude",
                                "Route Information", "Administrative Agency Phone Number",
                                "Data Reference Date", "Providing Agency Code")
colnames(Garosu_Gil) <- c("Street Tree Road Name", "Street Tree Road Description",
                           "Street Tree Road Start Point Name", "Street Tree Road Start Point Address",
                           "Street Tree Road Start Point Latitude", "Street Tree Road End Point Name",
                           "Street Tree Road End Point Address", "Street Tree Road End Point Latitude",
                           "Number of Street Trees", "Street Tree Road Length",
                           "Road Name", "Road Type", "Road Section", "Administrative Agency Name",
                           "Data Reference Date", "Providing Agency Code")

```

(3) Dataframe 중 필요없는 Column 삭제 및 na값 삭제

→ f_SouthKorea_Road, f_Garosu_Gil 처럼 f_ 붙여서 데이터프레임 지정

```

f_SouthKorea_Road <- SouthKorea_Road[, !(names(SouthKorea_Road) %in%
                                             "Administrative Agency Phone Number",
                                             "Administrative Agency Name",
                                             "Data Reference Date",
                                             "Providing Agency Code")]

```

```

    "Start Point Name",
    "Start Point Address",
    "Start Point Sub-Address (optional)",
    "End Point Name",
    "End Point Address",
    "End Point Sub-Address (optional)"
  ))]

f_SouthKorea_Road <- f_SouthKorea_Road %>%
  filter(
    rowSums(!is.na(.)) > 0
  ) ; f_SouthKorea_Road

```

(4) if/ else if 함수 이용하여 function 정의하고,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자세한 시, 동들을 광역기준으로 바꾸기.

→ 광역 기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가 목적이기 때문

```

library(dplyr)

classify_location <- function(address) {
  if (is.na(address)) {
    return(NA)
  } else if (grepl("서울", address)) {
    return("서울특별시")
  } else if (grepl("경기", address)) {
    return("경기도")
  } else if (grepl("충청남도", address) || grepl("충남", address)) {
    return("충청남도")
  } else if (grepl("충청북도", address) || grepl("충북", address)) {
    return("충청북도")
  } else if (grepl("세종", address)) {
    return("세종특별자치시")
  } else if (grepl("대전", address)) {
    return("대전광역시")
  } else if (grepl("전라북도", address) || grepl("전북", address)) {
    return("전라북도")
  } else if (grepl("광주", address)) {
    return("광주광역시")
  }
}

```

```

        return("광주광역시")
    } else if (grepl("전라남도", address) || grepl("전남", address))
        return("전라남도")
    } else if (grepl("경상북도", address) || grepl("경북", address))
        return("경상북도")
    } else if (grepl("\b대구\b", address) || grepl("대구광역시", address))
        return("대구광역시")
    } else if (grepl("울산", address)) {
        return("울산광역시")
    } else if (grepl("부산", address)) {
        return("부산광역시")
    } else if (grepl("경상남도", address) || grepl("경남", address))
        return("경상남도")
    } else if (grepl("제주", address)) {
        return("제주특별자치도")
    } else if (grepl("인천", address)) {
        return("인천광역시")
    } else if (grepl("강원", address)){
        return("강원도")
    } else {
        return(NA)
    }
}

```

(5) mutate() 이용하여 새로 열 생성(Region) : 이때 기준으로 하는 column은 도로명정보(Full Road Address) 혹은 제공기관정보(Providing Agency Name, Provider Institution Name)

```

f_SouthKorea_Road <- f_SouthKorea_Road %>%
  mutate(Region = sapply(`Providing Agency Name`, classify_location))

f_Garosu_Gil <- f_Garosu_Gil %>%
  mutate(Region = sapply(`Providing Agency Name`, classify_location))

f_Traditional_heritage <- f_Traditional_heritage %>%
  mutate(Region = sapply(`Provider Institution Name`, classify_location))

```

```

f_Cultural_Festival <- f_Cultural_Festival %>%
  mutate(Region = sapply(`Provider Institution Name`, classify_location))

f_Specific_Road <- f_Specific_Road %>%
  mutate(Region = sapply(`Provider Institution Name`, classify_location))

f_Accommodation <- f_Accommodation %>%
  mutate(Region = sapply(`Full Road Address`, classify_location))

f_Waterpark <- f_Waterpark %>%
  mutate(Region = sapply(`Full Road Address`, classify_location))

f_Museum <- f_Museum %>%
  mutate(Region = sapply(`Road Address`, classify_location))

f_Recreational_forest <- f_Recreational_forest %>%
  mutate(Region = sapply(`Street Address`, classify_location))

f_Performance <- f_Performance %>%
  mutate(Region = sapply(`Road Address`, classify_location))

```

(6) 새로 만들어진 Region column 중에 NA값이 있는지 확인

→ 있다면 돌아가서 다른 column 을 기준으로 mutate() 다시 하기

```

sum(is.na(f_SouthKorea_Road$Region))
sum(is.na(f_Garosu_Gil$Region))
sum(is.na(f_Traditional_heritage$Region))
sum(is.na(f_Cultural_Festival$Region))
sum(is.na(f_Specific_Road$Region))
sum(is.na(f_Accommodation$Region))
sum(is.na(f_Waterpark$Region))
sum(is.na(f_Museum$Region))
sum(is.na(f_Recreational_forest$Region))
sum(is.na(f_Performance$Region))

```

(7) 지역별 데이터 시각화 파트: 지역별 걷기여행길 개수를 시각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돋고, 각 막대에 개수와 백분율을 표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title명을 변경하여 다른 관광 요소 데이터에도 적용

```
#(3) Region_Counts Visualization

library(ggplot2)

#(3)-1 SouthKorea_Road_Counts Visualization

Region_Counts <- Region_Counts %>%
  mutate(SouthKorea_Road_Percent = SouthKorea_Road_Counts / sum(:,
  arrange(desc(SouthKorea_Road_Counts))

ggplot(Region_Counts, aes(x = SouthKorea_Road_Counts, y = reorder(
  geom_bar(stat = "identity") +
  geom_text(aes(label = sprintf("%d (%.1f%%)", SouthKorea_Road_Co
    position = position_dodge(width = 1), hjust = -0.2,
    theme_minimal() +
    labs(title = "지역별 걷기여행길 현황", x = "걷기여행길길 개수", y = "지역별 걷기여행길 개수",
    coord_cartesian(xlim = c(0, max(Region_Counts$SouthKorea_Road_Co
    theme(legend.position = "right",
      plot.margin = margin(t = 1, r = 1, b = 1, l = 1, unit =
    legend.box.margin = margin(10, 10, 10, 20),
    legend.text = element_text(size = 8),
    axis.text.x = element_text(size = 8),
    axis.text.y = element_text(size = 8))
```

(8) 상관관계1

- `exp_vis_search` 데이터와 `Region_Counts` 데이터를 병합하여 새로운 데이터프레임 `Region_merged_data`를 생성
- 필요한 열들만 추출한 `analysis_df`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관행렬 `correlation_matrix`를 계산
- 상관행렬을 시각화하며, 특정 변수들 (`Expenditure`, `Visitors`, `Search_Volume`)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강조

```

#(4) Analysing correlation and Visualization

#install.packages("reshape2")
library(reshape2)

exp_vis_search <- read_csv("exp+vis+search.csv", locale = locale
Region_Counts

Region_merged_data <- merge(exp_vis_search, Region_Counts, by =

colnames(merged_data) <- c("Region", "Expenditure", "Visitors",
                           "Garosu_Gil_Counts", "Traditional_Her
                           "Specific_Road_Counts", "Accommodation
                           "Museum_Counts", "Recreational_Forest

analysis_df <- merged_data[, c("Expenditure", "Visitors", "Search_Vol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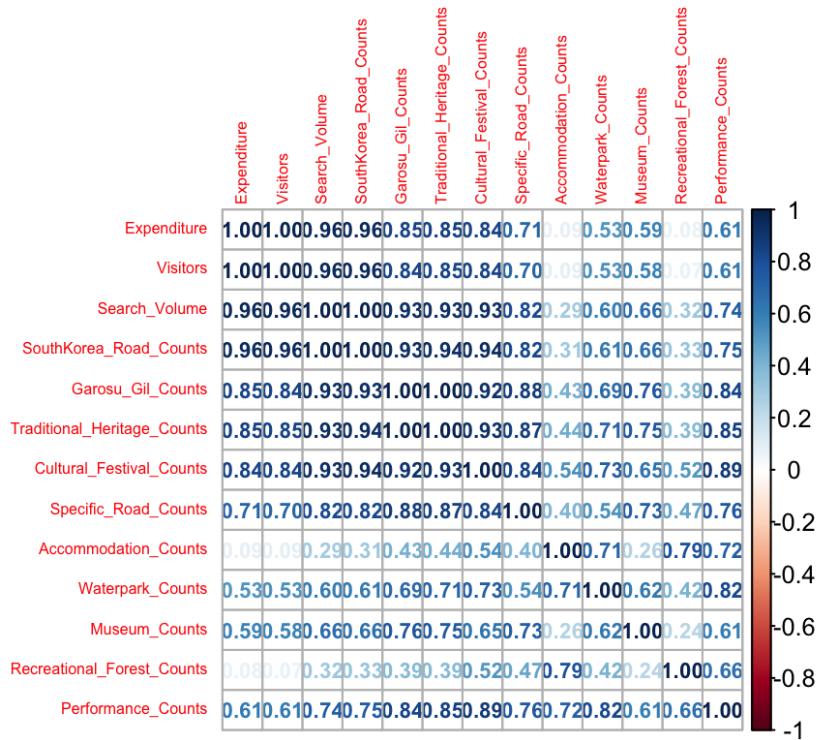
correlation_matrix <- cor(analysis_df, use = "complete.obs", method = "spearman")
#print(correlation_matrix)

correlation_df <- melt(correlation_matrix)

highlight_vars <- c("Expenditure", "Visitors", "Search_Volume")
correlation_df$highlight <- ifelse(correlation_df$Var1 %in% highlight_vars,
                                    correlation_df$Var2 %in% highlight_vars,
                                    TRUE, FALSE)

corrplot(correlation_matrix, method = "number", tl.cex = 0.5, num.ticks = 10)

```



(9) 상관관계2(P value)

```

# showtext package 설치
if (!require(showtext)) {
  install.packages("showtext")
  library(showtext)
}

# 구글폰트 설치해서 한국어 볼 수 있도록 하기
font_add_google("Nanum Gothic", "nanumgothic")
showtext_auto()

# 세로축 변수들과 가로축 변수들을 구분
vertical_vars <- analysis_df[, c("Expenditure", "Visitors", "Sea
horizontal_vars <- analysis_df[, c("SouthKorea_Road_Counts", "Ga

# 변수 이름을 한국어로 변경
colnames(vertical_vars) <- c("소비액", "방문자수", "검색수")

```

```

colnames(horizontal_vars) <- c("길관광", "가로수길", "향토문화유적", " "

# 피어슨 상관계수 및 p-value 계산
correlation_results <- rcorr(as.matrix(cbind(vertical_vars, horizontal_vars)))
correlation_matrix <- correlation_results$r
p_values_matrix <- correlation_results$P

# 필터링: 상관계수와 p-value의 필요한 부분만 선택
correlation_matrix <- correlation_matrix[1:3, 4:13]
p_values_matrix <- p_values_matrix[1:3, 4:13]

# 상관값, p-value값 구하기
correlation_df <- as.data.frame(as.table(correlation_matrix))
p_values_df <- as.data.frame(as.table(p_values_matrix))
combined_df <- cbind(correlation_df, p_values_df[, 3])
colnames(combined_df) <- c("Var1", "Var2", "Correlation", "P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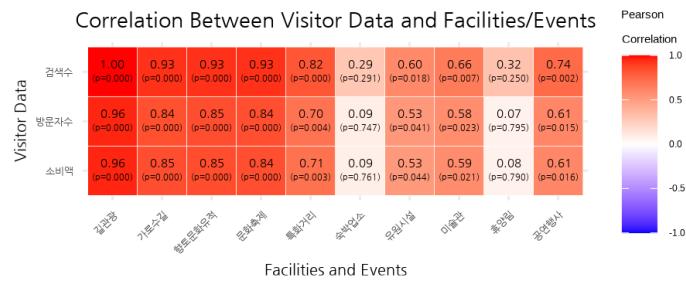
# 그에 대한 Plot 설정
ggplot(combined_df, aes(Var2, Var1, fill = Correlation)) +
  geom_tile(color = "white") +
  geom_text(aes(label = sprintf("%.2f", Correlation)), size = 4,
            family = "nanumgothic")
  geom_text(aes(label = sprintf("(p=%.3f)", PValue)), size = 3,
            family = "nanumgothic")
  scale_fill_gradient2(low = "blue", high = "red", mid = "white",
                        midpoint = 0, limit = c(-1, 1), space = "LCH",
                        name = "Pearson\nCorrelation") +
  theme_minimal() +
  theme(
    axis.text.x = element_text(angle = 45, vjust = 1,
                               size = 10, hjust = 1, family = "nanumgothic"),
    axis.text.y = element_text(size = 10, family = "nanumgothic"),
    axis.title.x = element_text(size = 15, family = "nanumgothic"),
    axis.title.y = element_text(size = 15, family = "nanumgothic"),
    plot.title = element_text(size = 20, family = "nanumgothic"),
  ) +
  coord_fixed() +
  labs(
    x = "Facilities and Events",
    y = "Visitor Data",
  )

```

```

        title = "Correlation Between Visitor Data and Facilities/Events"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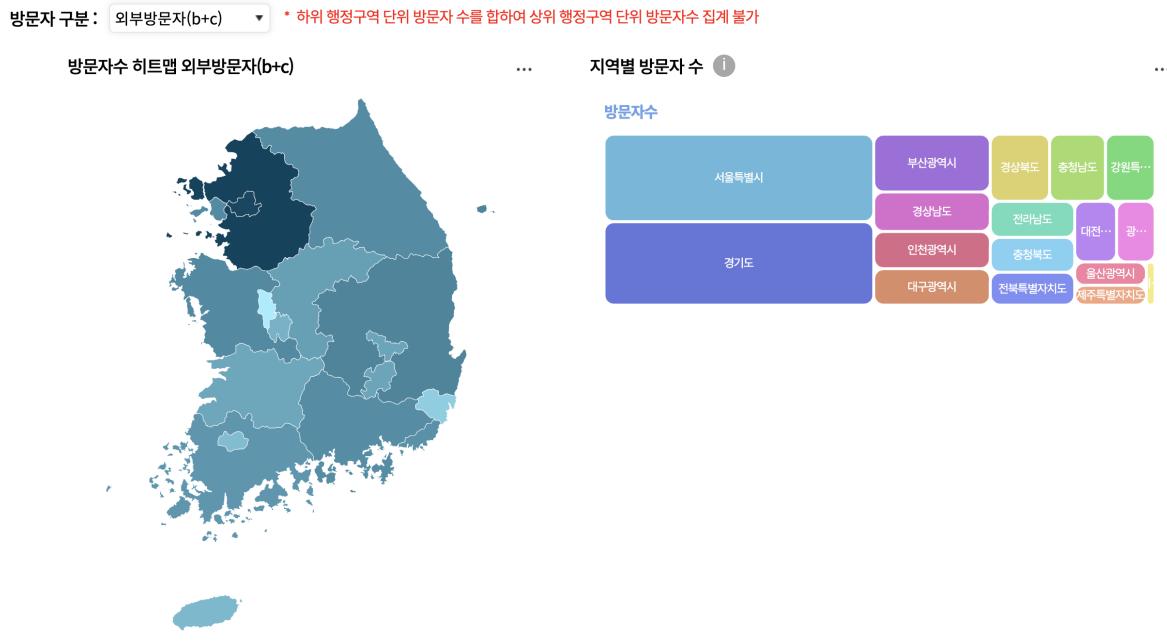


Date Pre-Processing / E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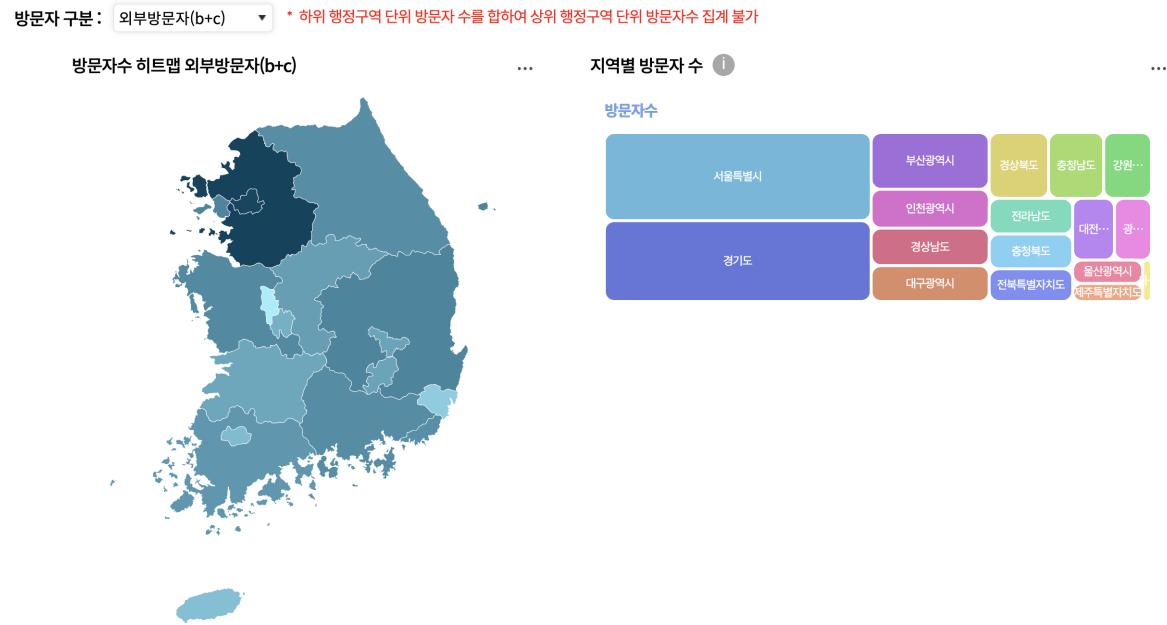
데이터 분석 내용 및 코드

▼ 우리나라 지자체별 관광객 수

2022년도



2023년도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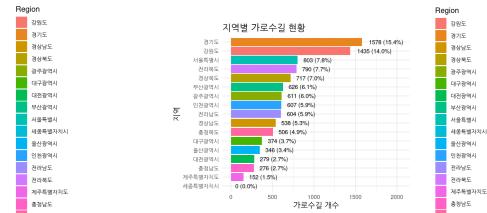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bda/getMetcoAna.do#>

▼ (시도 별) 지역별로 요소의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

(1) 지역별 걷기여행길 현황



(2) 지역별 가로수길 현황



(3) 지역별 문화유적 현황



(4) 지역별 문화축제 현황



(5) 지역별 특화거리 현황



(6) 지자체별 관광숙박업 인허가 현황



(7) 지역별 유원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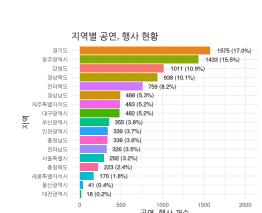
(8) 지역별 박물관, 미술관 현황



(9) 지역별 휴양림 현황



(10) 지역별 공연, 행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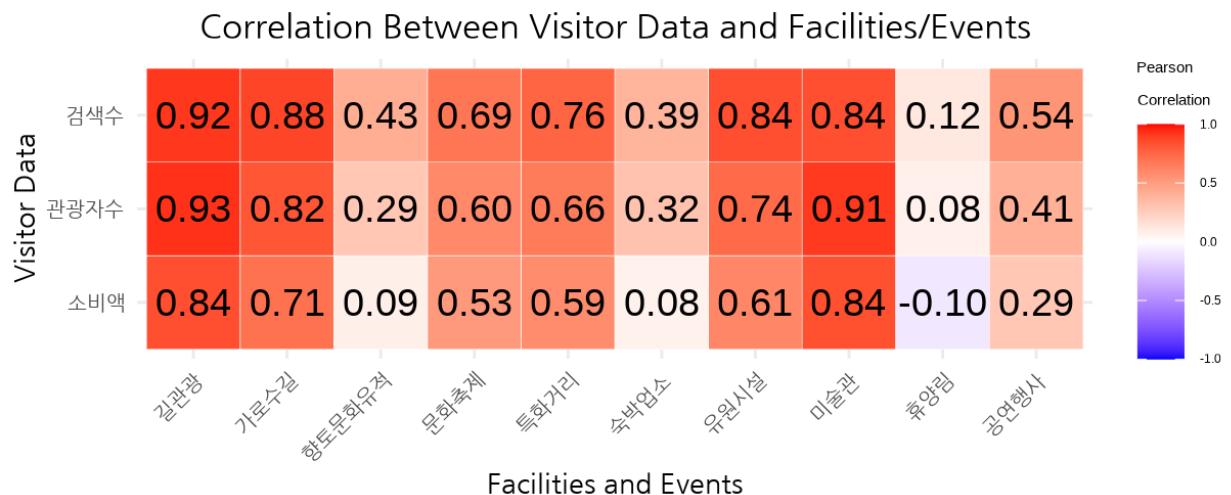
데이터 분석 최종 결과

[1] 상관 관계 분석에 따른 유의미한 관광 전략 탐구

? 관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광 요소는 무엇이었을까?

1)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 정리

다음으로는 각 요소와 지난 1년 간 지역별 관광자수(검색수, 소비액)를 비교해 어떤 요소가 가장 관광자수(검색수, 소비액)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알아봤다. 요소별로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려 비교했다.



상관관계 그래프를 통해

1

관광자수의 경우 길관광이 0.93으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휴양림이 0.08로 가장 상관관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비액의 경우 길관광과 미술관, 박물관이 0.84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고, 휴양림이 -0.1로 가장 상관관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색수는 관광자수의 상관관계 정도와 매우 유사한 정도를 보이며, 관광자수와 마찬가지로 길관광이 0.92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 휴양림이 0.12의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요소별로 상관관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검색수

길관광 > 가로수길 > 유원시설 = 미술관, 박물관 > 특화거리 > 문화축제 > 공연행사 > 향토문화유적 > 숙박업소 > 휴양림

관광자수

길관광 > 미술관, 박물관 > 가로수길 > 유원시설 > 특화거리 > 문화축제 > 공연행사 > 숙박업소 > 향토문화유적 > 휴양림

소비액

길관광 = 미술관, 박물관 > 가로수길 > 유원시설 > 특화거리 > 문화축제 > 공연행사 > 향토문화유적 > 숙박업소 > 휴양림

전체적으로 검색수, 관광자수, 소비액 모두 요소별로 비슷한 상관관계 순위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세 부문 모두 길관광, 가로수길, 미술관, 박물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원시설, 문화축제, 공연행사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 향토문화유적, 휴양림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우리는 관광요소를 세 종류로 묶어 관광요소가 어떤 이유로 관광자수(소비액, 검색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류]

종류 1: 길관광 + 가로수길 + 미술관, 박물관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 2: 유원시설 + 특화거리 + 문화축제 + 공연행사 (상관관계)

중간 그룹)

종류 3: 향토문화유적 + 숙박업소 + 휴양림 (상관관계)

낮은 그룹)

2) <종류 1>의 높은 상관관계 원인 분석

먼저 종류 1에서 길관광과 가로수길은 모두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코스라는 특징이 있다. 길관광 데이터에서 길소개 부분을 보면, ▲동해안을 벗삼아 시를 읊던 묵객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해안길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진리, 마달리, 마차진리, 배봉리 숲길을 정비한 트레킹 공간 등 대다수가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인데, ▲가을 이면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잎거리가 아름다움 ▲왕벚나무가 주된 수종이며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 있음 등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 국내 관광 트렌드는 웰니스, 힐링 등의 키워드이며 쉼이 있는 여행은 하나투어에서도 2024 여행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했을 정도로 최근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소셜데이터에서 웰니스 언급량 추이를 분석한 그래프

(출처: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4 국내관광 트렌드 R.O.U.T.E

아래: 하나투어에서 선정한 2024
여행 트렌드 DREAMER

또한 앞선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검색수와 관광자수의 상관관계 정도가 유사하게 흘러갔다는 점을 봤을 때, 최근 늘어나는 힐링과 웰니스 언급량이 실제 관광자수에도 영향을 미쳐 길관광과 가로수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을 거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늘어가는 힐링 여행에 대한 수요로 인해 분류 1의 길관광과 가로수길이 관광객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분류 1에서의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2030의 미술관에 대한 수요증가와 자녀를 둔 부모들의 꾸준한 박물관 방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2023 상반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약 150만명의 관람객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각각 37%와 26%로 높았다. 또한 최근 박물관 굿즈, 일명 '鸷즈'의 유행으로 박물관의 관람객 또한 증가했는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따르면 2023년도 박물관 방문객은 역대 최대인 417만명을 기록했으며 매출도 재단 창립 이래 최대인 149억원을 기록했다.

▼ 참고) 미술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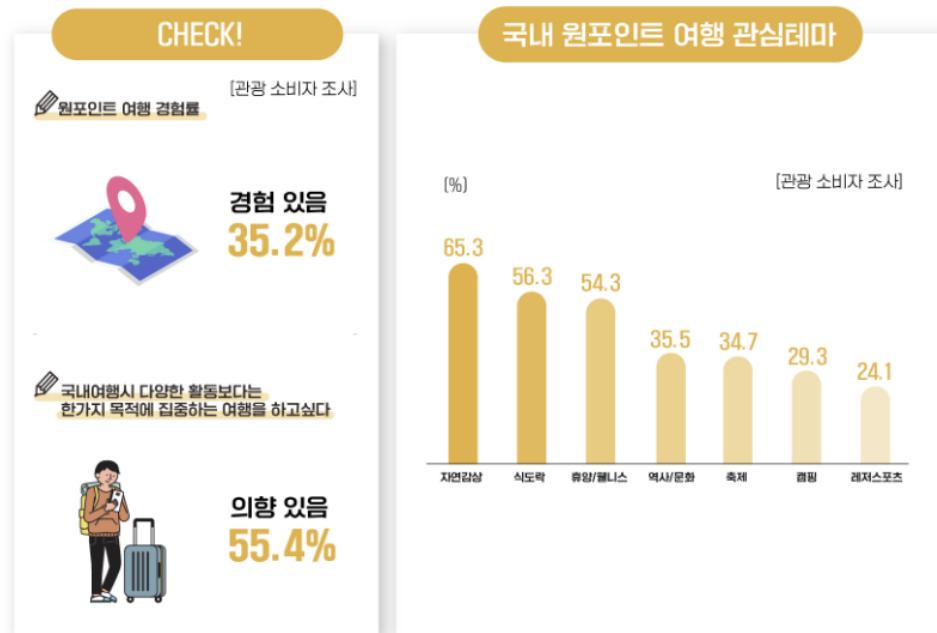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7010322122730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12530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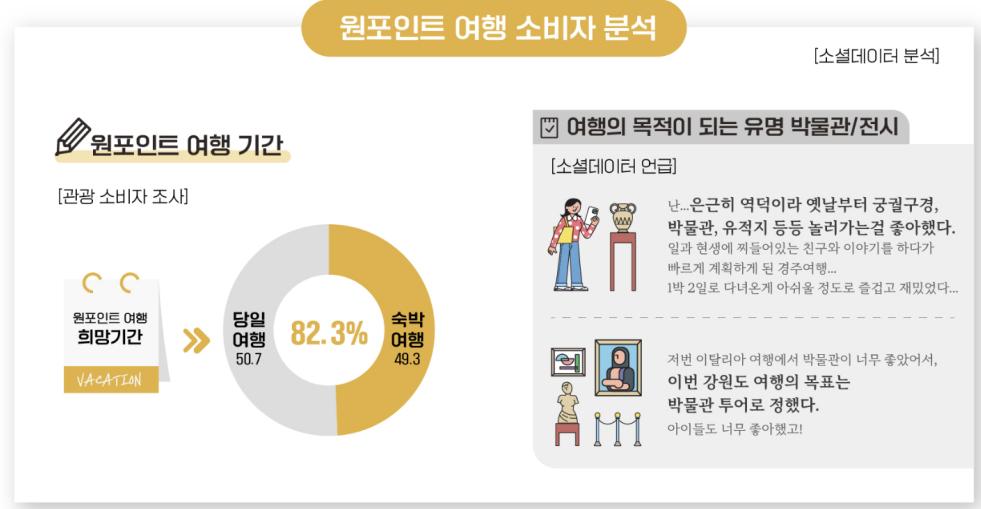
▼ 참고) 박물관 굿즈, 박물관 방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싶다면?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2521360982042>

또한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가지 컨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원포인트 여행 또한 2024 여행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또한 원포인트 여행 관심테마로 역사/문화 등이 35.5%라는 큰 비율을 차지했고, 소셜데이터 분석 사례에서도 유명 박물관/전시 등이 하나의 주요 테마로 언급된 점을 보면 박물관/미술관 탐방이 원포인트 여행의 인기 테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30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와 원포인트 여행의 인기 테마가 유명 박물관 및 전시라는 점이 높은 상관관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종류 2>의 상관관계 분석

유원시설, 특화거리, 문화축제, 공연행사로 구성된 종류 2는 종류 1과 3에 비해 체험형 관광요소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형 관광요소는 종류 1에 미치진 못하지만 평균 0.65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이를 보면 관광객 유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류 2의 여러 체험형 관광요소 중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는 유원시설과 특화거리이다. 이를 볼 때 일시적인 이벤트성 관광요소인 문화축제, 공연행사보다는 관광객들이 시기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요소들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종류 3>의 낮은 상관관계 원인 분석

종류 3은 향토문화유적, 숙박업소, 휴양림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주목할 점은 휴양림은 여러 2024 여행 트렌드 보고서에서 언급된 웰니스, 힐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행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향토문화유적 또한 종류 1에서 박물관 미술관이 큰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휴양림과 향토문화유적 모두 최근 트렌드와 밀접한 여행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대표적인 이유를 '교통의 불편함'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향토문화유적 표준 데이터에서 향토문화유적종류를 보면 묘역과 생가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묘역, 특히 지방에 있는 묘역의 경우 대다수가 산에 위치해 관람객들이 찾아가기 어렵고, 지자체에서도 향토문화유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향토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보존, 관리(류호철, 2022) 논문에서도 향토문화유적의 관리 미비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향토문화재의 경우 법률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명목상 지정만 해놓거나 안내판 설치 등 최소한이 조치만 취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대체로는 적극적인 보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향토문화재를 활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향토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보존·관리: 경기도 안양시 향토문화재를 사례로, 류호철, 2022)

이처럼 향토문화유적의 경우 관광지로서의 인식도 부족과 교통의 불편함이 상관관계가 낮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휴양림도 교통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이다. 휴양림은 대다수가 산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20대에게 가로수길, 길관광 등 접근성이 높은 자연 관광지에 비해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최근 웰니스, 힐링 등의 키워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 휴양림, 열린관광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면?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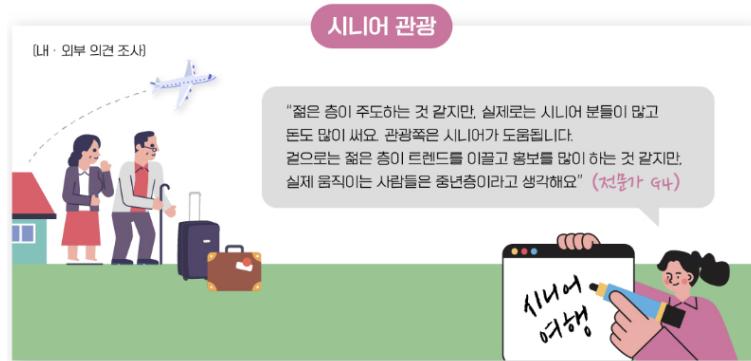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94>

5) 최종정리

우선 길관광, 가로수길, 휴양림으로 대표되는 힐링 관광 측면에서는 지자체별로 자연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접근성이 높도록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형 관광요소를 기획할 때 예산이 많이 들고 일시적 이벤트인 지역축제, 문화공연 유치보다는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와 유원시설을 우선적으로 기획하는 게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미술관, 향토문화유적 등 문화 관광 측면에서는 굿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박물관 미술관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향토문화유적은 당장 관광객의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만큼, 관광지로 홍보하기 앞서 지자체 내에서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거쳐 관광지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 임산부, 시니어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갈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관광의 주요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 내에서 휴양지, 향토문화유적 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인지 점검하고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시니어는 관광산업의 주 소비층이기 때문에 열린 관광지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2]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제안

? 관광객 수 상위 3개 하위 3개 지역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1) 관광객 수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 선별

: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2022년과 2023년 관광객 수 순위를 기준으로, 2년 연속 상•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3개 지역을 선별했다.

▼ 17개 지자체 구분 목록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관광객 수 데이터

20240529103134_방문자수.csv

a. 관광객 수 상위 3개 지역 선별

2023년	2022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선별된 관광객 수 상위 3개 지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b.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 선별

2023년	2022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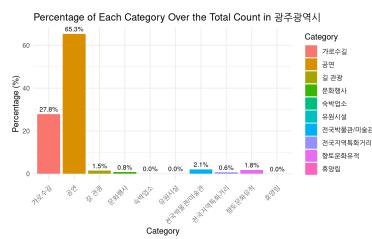
선별된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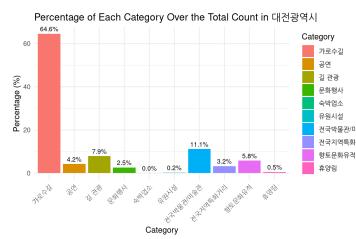
2) 관광객 수 상위 3개 지역과 하위 3개 지역 내 관광요소 별 비율

1. 관광객 수 상위 3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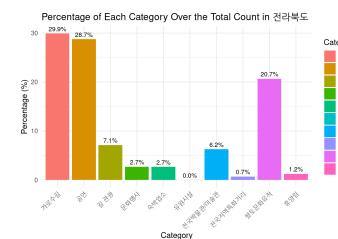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공연, 가로수길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상관관계 중간 그룹 (종류2)에 속하는 공연의 비율이 총 관광 요소의 93%를 차지함.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가로수길, 박물관/미술관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박물관/미술관의 비율이 총 관광 요소의 약 76%를 차지함.

그 중에서도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가로수길의 비율이 전국 18개 지역 중 2위로 매우 높음.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가로수길, 공연, 향토문화유적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상관관계 중간 그룹(종류2)에 속하는 공연의 비율이 총 관광요소의 58.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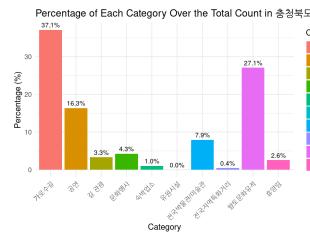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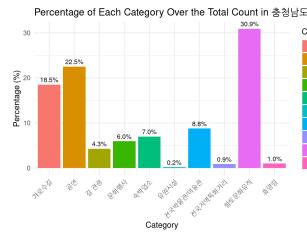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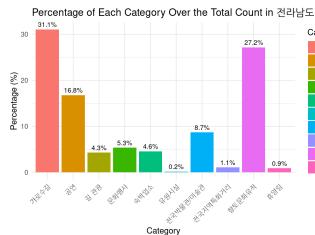
다른 상위2개 지역과 달리 하위 그룹(종류3)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이 높은 편임.

2.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가로수길, 향토문화유적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상관관계 낮은 그룹 (종류3)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이 총 관광 요소의 약 58%를 차지함.

이 중 종류3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은 전국 18개 지역 중 3위로 매우 높은 편.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향토문화유적, 공연, 가로수길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상관관계 중간 그룹 (종류2)에 속하는 공연, 상관관계 낮은 그룹 (종류3)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이 총 관광 요소의 약 82%를 차지함.

이 중 종류3에 해당하면서, 30.9%로 가장 비율이 높은 향토문화유적의 경우 전국 18개 지역 중 1위에 해당함.

1. 지역 내 관광요소 특징

▲ 가로수길, 향토문화유적

2. 상관관계 그룹 별 요소 비율 특징

상관관계 높은 그룹 (종류1)에 속하는 가로수길과 상관관계 낮은 그룹 (종류3)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이 총 관광 요소의 약 65%를 차지함.

이 중 종류3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적의 비율은 전국 18개 지역 중 4위로 매우 높은 편. (3위인 전라남도와 0.1% 차이)

3)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에서 현재 시행중인 전략

1. 세 지역의 공통점

세 지역 모두 관광객 수와의 상관관계가 낮은 그룹 (종류3)에 속하는 **향토문화유적 관광 요소의 비율**이 전국 18개 지역 중 1위 (충청남도), 3위 (전라남도), 4위 (충청북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다.

2. 각 지역 별 현행 전략 특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관광객 유치 전략과 202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관광유형 고도화 및 활용방안 도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지역 별 관광개발 계획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1) 전라남도

현행 전략

| 자연생태, MICE 관광

전남도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에서 발표한 '연례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순천만 관광의 활성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2752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를 집계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가 방문객 **778만1426명**으로 입장객 최다 관광지에 올랐다.

하지만 이는 재방문율을 고려하지 않고 중복 입장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전라남도 MICE 회의시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로, 전라남도에서는 일종의 단기 워케이션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리 상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체들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MICE 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관광개발 계획 키워드

북부(휴양, 웰빙, 축제, **농촌체험**), 서부(섬, 해양생태, 힐링), 중남부(역사문화, 생태, 먹거리), 동부(**남해안**, 레저)

▼ 2) 충청남도

현행 전략

지리적으로 백제 유적지가 위치해 있어, 향토문화유적지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한 산림지역과 약초 재배지역이 위치해 있어 가로수길이나 대규모 관광단지를 구축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추진과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을 품격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의 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관광개발 계획 키워드

산업관광, 해양레저 웰니스, 내포해륙,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방 웰푸드](#)

▼ 3) 충청북도

현행 전략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 중 누리집을 통한 관광 정보 공유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다.

충북나드리 -

<https://tour.chungbuk.go.kr/www/index.do>

충북나드리 Tour

특히나 월별 추천 관광지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추천 숙박업소를 충청북도 공식 누리집에서 소개하고 있다.

충북나드리 - 6월



<https://tour.chungbuk.go.kr/www/contents.do?key=257>

추천 여행 코스에 대해서도 교통수단별, 테마별, 여행기간별, 시작지점과 종료지점별로 다양한 코스를 안내하고 있어 관광객의 빠른 여행 계획 수립을 돋고 있다.

충북나드리 - 추천여행코스



<https://tour.chungbuk.go.kr/www/selectTourCrseList.do?key=55>

가장 주목할 점은 무장애 추천 여행지에 대해서는 따로 누리집을 만들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사로,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전용 화장실, 승강기와 같이 무장애 관광지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설치 현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관광명소, 전시, 박물관, 공원 등 관광요소 대부분이 무장애 관광이 가능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또한 지도 API를 제공함으로써 무장애 관광지의 위치를 쉽게 파악,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칭찬할 만하다.

네바퀴로떠나는 충북여행

남한강이 휘돌아 이룬 깊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푸른 강물 가운데 우뚝 선 장군봉의 허리쯤에 수각(水閣)이 있어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멋진 절경의 단양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https://freetour.chungbuk.go.kr/www/index.do>

네바퀴로 떠나는 충북관광지도

거리제기

시군검색

- 청주시
- 충주시
- 청주시
- 보은군
- 읍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청주시
- 충주시
- 청주시
- 보은군
- 읍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유형선택

관광

- 관광명소
- 전시/박물관
- 공원
- 영화관
- 공연장

생활

- 공공기관
- 도서관
- 체육시설
- 광장이용시설
- 슈퍼마켓/편의점
- 일반판매점
- 숙박시설
- 음식점
- 금융시설
- 기타

부대시설

- 천체

관광개발 계획 키워드

백두대간 휴양관광, 융복합 스마트관광, 중원수변문화관광, **대청호 생태문화관광**

4) 관광객 유치 전략 제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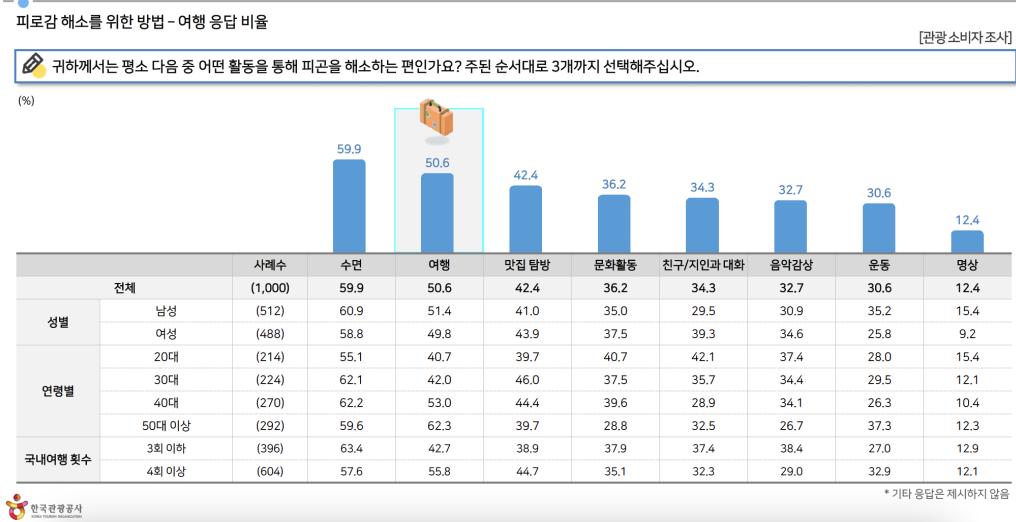
하위 3개 지역에 제안할 전략

: 국내 여행객 관광 트렌드 분석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 제안

국내 여행객 관광 트렌드 분석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년 이내 관광목적의 국내여행을 경험한 2020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 세부 주제별 행
태 및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여행의 목적을 휴식과 웰니스에 두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나, 피로감 해소 방법으로 '여행'을 응답한 비율이 50.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내여행 횟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50대 이상 소비자의 경우, 피로감 해소를 위한 방법 중 '여행'에 대한 응답이 62.3%로 1위 답변이었다는 점이다.



<전략 Key word>



Target Persona

: 50대 이상, 휴식을 목표로 국내 여행에서 여유로운 일정을 보내고자 하는 여행객



Target Concept

: 쉼, 웰니스, 힐링, 다양한 즐길거리보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2

지역 별 자세한 전략 제안

: 지역별 세부 조사를 통한 개별적인 전략 제안

▼ 1)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국내 섬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총 2,014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점을 특화 요소로 활용해, 나만 아는 명소로의 여행을 원하는 국내 여행객들을 타겟팅함으로써, 바다와 해안 지역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광객이 적고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 여유를 즐기는 '촌캉스'에 대한 수요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전국 섬의 개수와 면적 현황

구분	전체 섬 소계				유인섬 (2021.12.31.)				무인섬 (2020.12.31.)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	%	m ²	%	개	%	m ²	%	개	%	m ²	%
부산	45	1.33	42,872,790	1.11	3	0.65	38,758,197	1.03	42	1.44	4,114,593	4.82
인천	191	5.65	721,374,104	18.67	38	8.19	710,112,808	18.79	153	5.24	11,261,296	13.20
울산	4	0.12	29,139	0.001	-	-	-	-	4	0.14	29,139	0.03
경기	42	1.24	4,789,769	0.12	5	1.08	3,984,181	0.11	37	1.27	805,588	0.94
강원	29	0.86	281,984	0.01	-	-	-	-	29	0.99	281,984	0.33
충남	286	8.46	159,997,488	4.14	34	7.33	152,409,820	4.03	252	8.64	7,587,668	8.90
전북	130	3.84	41,083,867	1.06	25	5.39	37,007,977	0.98	105	3.60	4,075,890	4.78
전남	2,014	59.55	1,888,905,068	49.14	271	58.41	1,854,752,570	49.08	1,743	59.73	44,152,498	51.77
경북	22	0.65	73,378,962	1.90	3	0.65	73,255,321	1.94	19	0.65	123,641	0.14
경남	552	16.32	905,508,422	23.43	77	16.59	894,874,787	23.68	475	16.28	10,633,635	12.47
제주	67	1.98	16,265,500	0.42	8	1.72	14,038,955	0.37	59	2.02	2,226,545	2.61
합계	3,382	100	3,864,487,092	100	464	100	3,779,194,615	100	2,918	100	85,292,477	100

주 1: 유인섬의 측정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무인섬의 측정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임

주 2: 유인섬 개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분석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유인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5.3.); 해양수산부, 「무인섬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23.4.18.)

기존의 향토문화유적지역에 대한 집중보다는 비활성화되어있던 자연환경 자원인 '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섬 주민들의 참여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섬 내 편의시설이나 의료시설, 입도 과정에서의 편의성 (배편 예약 및 교통편 등)과 섬 내 '맛집'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숨겨진 여행지 찾기 여행 희망 방문 지역

(%)

[관광 소비자 조사]

여행 관련 '숨어있는' 것, 장소는 자연(바다, 산, 꽃 등)의 풍경과 맛집, 명소, 마을, 코스, 함께하는 것은 친구, 중요한 것은 분위기

[소셜 분석 결과]

[여행(G) vs 여행(G)+숨다/숨은 연관어 순위]

여행(G)		
No.	키워드	Freq.
1	아이	573,599
2	친구	566,841
3	카페	562,222
4	바다	536,635
5	날씨	485,034
6	숙소	475,493
7	아침	461,953
8	맛집	452,433
9	호자	422,946
10	가족	411,976
11	하루	406,753
12	자녀	406,734
13	음식	345,263
14	엄마	338,185
15	가격	295,875
16	관광	294,794
17	호텔	289,479
18	풍경	286,634
19	분위기	280,882
20	밤	276,988

여행(G)+숨다/숨은		
No.	키워드	Freq.
1	바다	2,075
2	맛집	1,918
3	카페	1,903
4	아이	1,758
5	날씨	1,731
6	명소	1,689
7	풍경	1,574
8	친구	1,324
9	아침	1,297
10	숙소	1,289
11	혼자	1,173
12	가족	1,173
13	분위기	1,140
14	꽃	1,101
15	저녁	1,096
16	코스	1,079
17	하루	1,043
18	마을	997
19	산	991
20	여름	965

※ 하이라이트: 여행(G)+숨다/숨은에서 순위 높은 키워드

제주 꽃 구경할 수 있는 허브동산! 친구와 제주여행하면서 찾아갔는데 사람도 없고 숨은 명소 발견한 거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제주 태웃개 친구들과 바닷가 어디갈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숨은 명소. 사람많은 곳만 가다가 조용하게 잘 놀다왔다.

* 기타 응답은 제시하지 않음

※ SOMETREND™, Total, 2020.08.01 ~ 2023.0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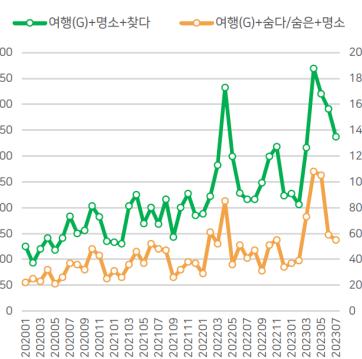


여행(G) 연관 언급량 X 증감률 Matrix 내 '숨은 관광지' 연관 키워드 현황

	언급량 증감률 下	언급량 증감률 中	언급량 증감률 上
언급량 上	바다, 산		
언급량 中	숲, 계곡, 시골, 해안, 경치	명소	
언급량 下	농장, 섬여행, 무인도, 어촌마을, 농촌체험		촌캉스



'여행(G)+숨다/숨은+명소의 월별 언급 추이'



'촌캉스'의 월별 언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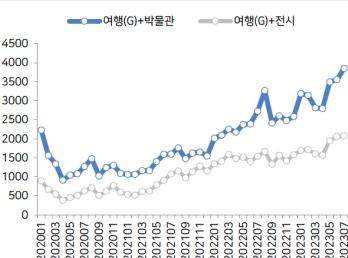


▼ 2) 충청남도

백제 문화지역을 단순히 향토문화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 박물관/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이를 활용한 공연 관광 요소를 개발하는 데에 투자가 필요해보인다.

박물관/전시 소셜분석

여행(G)+'박물관', 여행(G)+'전시'의 월별 언급추이



여행의 목적이 되는 유명 박물관/전시

난... 은근히 역덕이라 옛날부터 궁궐구경, 박물관, 유적지 등 놀라가는 걸 좋아했다. 일과 현생에 지쳐들어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빠르게 계획하게 된 경주여행... 1박 2일로 다녀온 게 아쉬울 정도로 즐겁고 재밌었다...

※ SOMETRENDTM, Total, 2020.01.01 ~ 2023.07.31



배움의 뿌듯함을 주는 곳

여행을 통해 자녀가 교육적으로 얻기를 바라 선택하는 박물관 탐방

저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박물관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 강원도 여행의 목표는 박물관 투어로 정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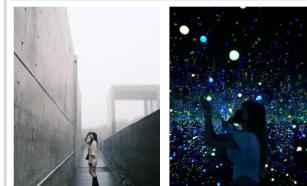
'남는 것이 있는' 박물관/전시 관람을 하게 해주는 도슨트

더 플래닛의 장점 이처럼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마련되어 있는 더 플래닛은 여름 성수기에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인데요. 도슨트 진행이 가능해서 더욱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도슨트]의 연도별 언급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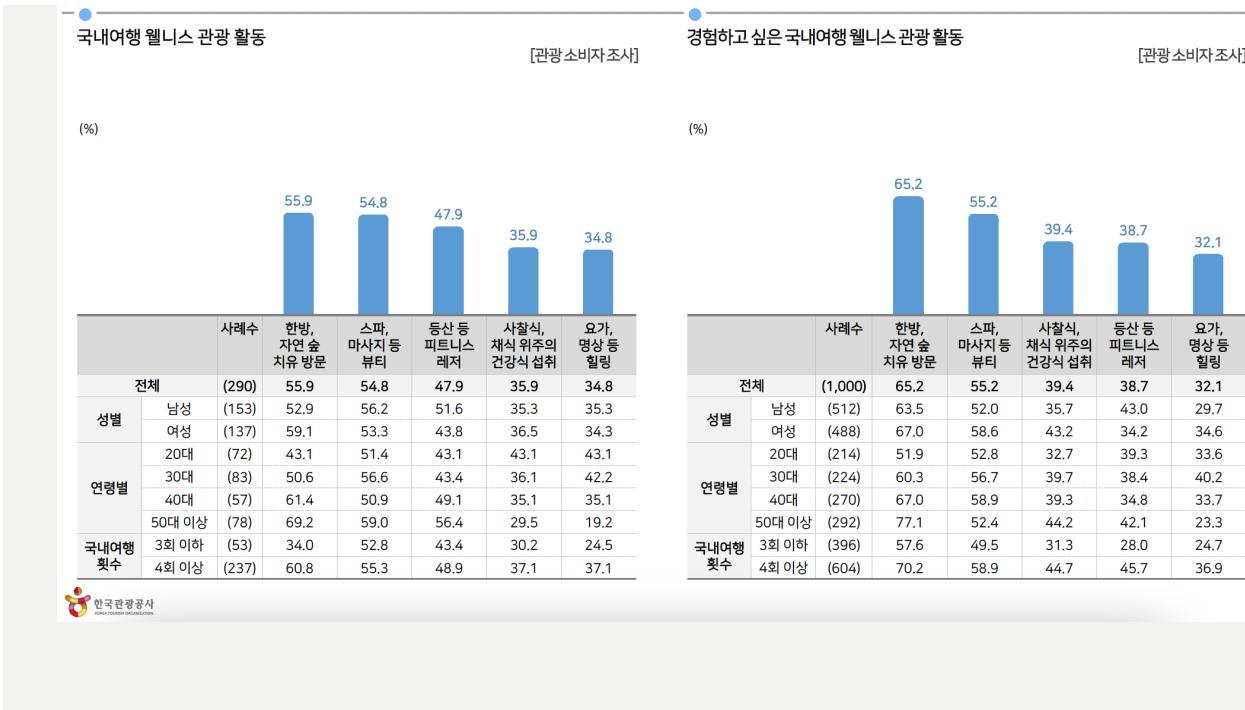


빼놓을 수 없는 인증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미디어아트 전시회는 작품관람과 함께 예쁜 인생사진도 건질 수 있는 곳인 것 다들 아시죠?

보령 지역과 금산 지역 등 현재 약초와 차 종류의 재배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형 한방, 웰푸드 컨셉의 관광 프로그램을 충청남도청 주관 하에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시니어와 가족 단위의 웰니스 추구 여행객을 타겟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하위 3개 지역 중에서도 숙박시설의 설치 비율이 가장 낮지만, 숙박시설의 규모가 크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의 주요 니즈인 구분된 공간과 마당이 포함된 숙박시설의 설치 현황은 긍정적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동반 자연생태관광 컨셉을 기반으로 ‘모두에게 열린 백두대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여행g+'명소 찾다'의 연관어

No.	키워드	Freq.
1	사람	4,288
2	풍경	2,596
3	바다	2,541
4	제주도	2,040
5	나무	1,761
6	카페	1,737
7	꽃	1,516
8	바람	1,406
9	물	1,367
10	가족	1,338
11	아이	1,215
12	자연	1,192
13	여름	1,161
14	분위기	1,132
15	봄	1,131
16	산	1,075
17	가을	1,063
18	아침	992
19	관광객	990
20	해변	984
21	친구	983
22	힐링	979
23	맛집	961
24	산책	957
25	겨울	936
26	벚꽃	856
27	저녁	839
28	국내여행	838
29	전망대	827
30	밤	820

명소의 핵심은 자연 : 바다, 나무, 바람, 물, 꽃의 '풍경'

제주 비경 서중천. 그 종 명소로 서중천을 찾았다. 아무도 제주사람조차 찾기 힘든 비경이 여기에 있다. 서중천 트레킹을 추천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귀리일원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풍경에 절로 힐링 됩니다.

제주도 여행. 서귀포 대평리 정말 아득하고 한적해요. 나를 허든 명소. 산방산과 더불어 바다의 풍경이 기가 막힌 곳이죠

제주도 저지오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오름은 아닌 듯. 명소를 찾은거 같아 기분이 좋다. 정상까지 꽤 힘들었는데 풍경도 너무 좋았고 숲이 너무 좋아서 너어어무 힘들었지만 힐링한 기분이다.

성주 미수폭포 등산객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 숨겨진 명소인 만큼 성주 가야산 여행을 온다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폭포라 한 번쯤 다녀가면 너무 좋을 듯싶다.



바다, 나무, 바람, 물, 꽃의 '풍경'

밀양에 사람 없는 명소. 월연정 배롱나무. 저번에 여름에 와서 봤었는데 겨울엔 너무 추워서 못갈 것 같다! 여름에 가보는 것 추천!

불영 유채꽃, 겨울엔 동백꽃 그리고 여름엔 수국, 제주도는 계절마다 명소들이 바뀌어서 갈때마다 새롭다.

여름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겨울에 오니 사람이 없는 판포포구. 눈까지 오니 정말 새롭다. 다음엔 여름에 와서 수영도 해봐야지.



명소의 자연을 즐기는 콘텐츠 : 카페, 맛집, 산책,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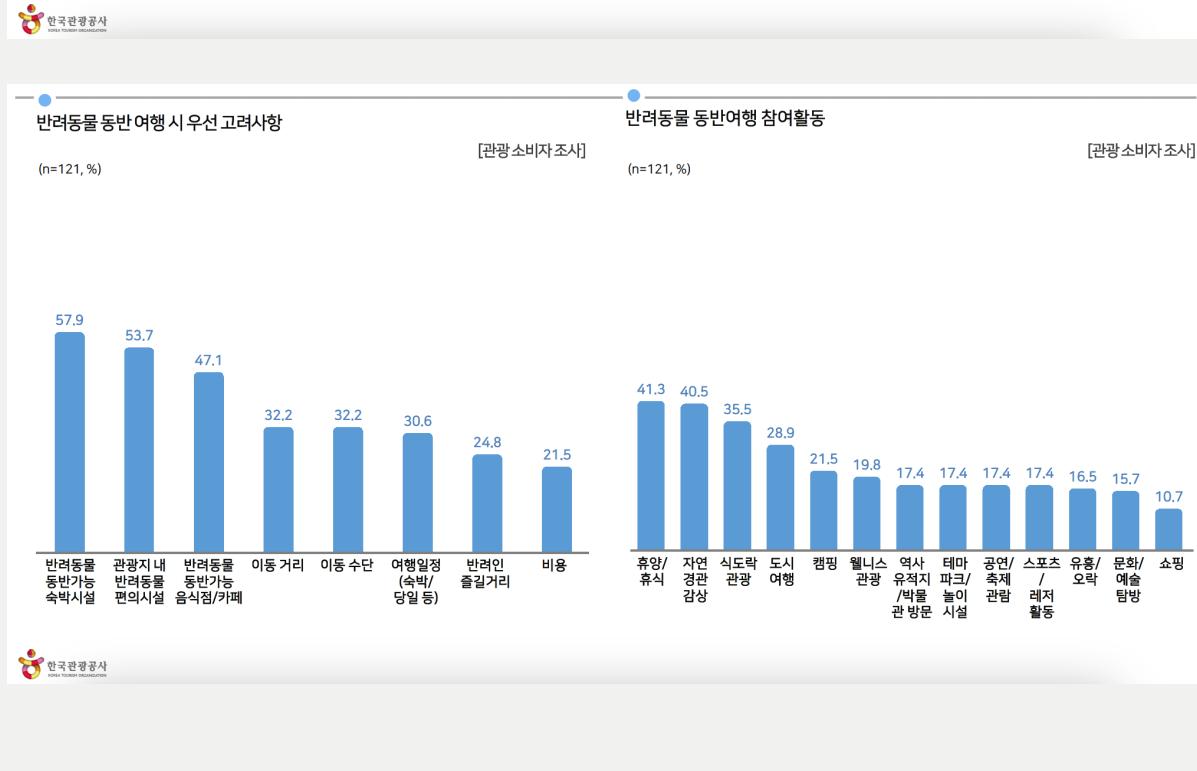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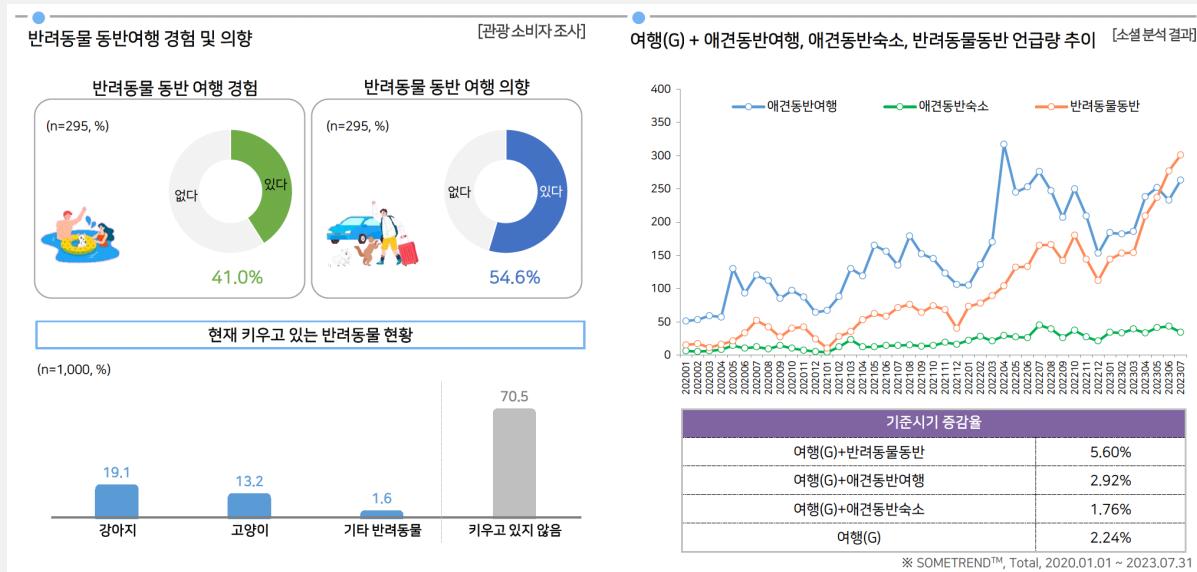
일진강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숨은 명소. 길 옆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장산전망대까지 길이 죽 나있어서 길따라 올라가시면 되구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어요!

격포해수욕장. 산책 중 어찌다 찾게된 노을 명소. 게다가 우연히 발견한 카페도 독특하고 너무 좋았다. 완벽한 여행!

※ SOMETREND™, Total, 2020.01.01 ~ 2023.07.31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의 목적 중 가장 높은 것이 휴식 & 자연경관 감상 이므로, 숙박시설의 개선/확충 과정에서 반려동물 동반 숙박 가능 업소를 늘리는 데에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의 한계점

1. 데이터별로 시기가 상세하게 일치하지 않음

각 데이터별로 자료가 수집된 정확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축제 데이터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수집됐지만, 상관관계를 분석한 각 지역별 관광객 수는 최근 1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이다. 또한 다른 관광요소들도 수집 시기가 모두 다르다. 이렇게 데이터별로 수집 시기가 상세하게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다.

2. 시도별 교통편의성이나 기후 특성 같은 다른 요소가 고려되지 않음

시도별 관광객 수와 관광요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도별 기후 특성, 자연환경의 차이(산지, 해변 등), 지리적 위치(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교통 편의성 및 이동 시간) 등 건물이나 거리, 문화단지 등 인문환경적 관광요소 이외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광요소 별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관광객 수 하위 3개 지역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제안 단계에서도 각 지역이 가진 관광요소 외적 요소, 특히나 이동이나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유적단지에 대한 전략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산맥이나 해안선 등 자연환경의 다양성이 매우 큰 대한민국 국토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 분석을 진행한다면 지역 별로 더 자세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손실의 가능성 존재

유원시설 데이터의 경우 폐업, 휴업, 인허가취소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영업중인 유원시설로만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라북도를 포함한 다섯개 지역에 유원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해당 지역들에도 유원시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진 못했다. 이런 데이터 손실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다.

4. 상관관계 결과가 인과관계를 나타내진 않음.

결론 1에서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요소와 관광자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에 분석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적 탐구를 더 실행하여 분석의 한계점을 보충하였지만,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또한 필요하다.

▼ 참고자료

2024 관광트렌드 전망 및 분석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24

2022 기초지자체별 관광유형 고도화 및 활용방안 도출, 데이터&투어리즘 19호, 한국관광공사, 2022

남도여행길잡이 공식 누리집 (전라남도) <https://www.namdokorea.com/#homePage>

충청남도청 공식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main.do>

충청북도 관광과 공식 누리집 <https://tour.chungbuk.go.kr/www/index.do>

충청북도 무장애 관광지 공식 누리집 <https://freetour.chungbuk.go.kr/www/index.do>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지난해 입장객 최다 관광지, 이경미, 코리아넷, 2024.06.10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
seq=1048536&searchType=menu0026&langCode=lang001&ctrCode=](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8536&searchType=menu0026&langCode=lang001&ctrCode=)

2024 글로벌 여행 트렌드 5가지 "뻔한 관광 NO", 조 텐서, THEPR, 2024.03.05.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61>

지역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향토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보존.관리: 경기도 안양시 향토문화재를 사례로, 류호철, 2022.

하나투어, 2024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 'D.R.E.A.M.E.R' 선정, 서미영, 디지털조선일보, 2023.12.20.,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12/20/2023122080100.html

관람객 63% '2030'... 미술관, MZ 핫플로 뜨다, 유승목, 문화일보, 2023.08.07.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701032212273002>

예약전쟁, 주차난, 줄서기...수십만명 찾는 미술관 인기 전시, 황희경, 연합뉴스, 2023.06.25.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3125300005>

[Z시세] "반가사유상 사야 돼요"... '떴즈' 사러 오픈런하는 MZ세대, 정수현, MoneyS, 2024.03.13.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22521360982042>

용인자연휴양림, 장애인 불편시설 많아, 조봉현, 소셜포커스, 2022.09.13.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38>

자연 만끽하다 주차난에 '끙끙'...장태산 휴양림 진입로 넓힌다, 이다온, 대전일보, 2024.05.27.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794>